

Supplementary Table 9. 적정 기간 중 매주 CRP의 측정

<p>1. 당위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RP의 측정은 전세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적은 비용으로 시행 가능한 검사이다. • 검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염증의 여부 뿐이지만, 클로자핀의 적정 과정에서 이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. 초기 검사에서는 정상이었던 CRP가 비정상인 된다면 다음의 상황을 배제해야 한다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클로자핀 청소율에 비해 적정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발생한 클로자핀-유발 염증 ○ 감염의 병발, 특히 상부 호흡기 감염이 병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함 • CR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있다면 전신의 염증 상황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의 작용으로 인해 클로자핀의 대사가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. • 매주 WBC 수를 측정할 때 CRP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 좋다. CRP의 상승은 클로자핀-유발 염증을 나타내는 첫번째 징후이며 염증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⁾. 클로자핀 저대사자들은 대개 최소치료용량이 낮은데(<100mg/day), 통상적인 적정 스케줄을 적용하면 1주차부터 CRP가 조기에 상승될 수 있다^{38,39)}
<p>2. 측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RP의 측정 기술과 정상 범위는 실험실마다 다양하다; 주어진 환경에서 제시되는 정상범위를 참조할 것을 권고한다.
<p>3. 초기 CRP가 비정상일 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기 검사에서 CRP를 확인하면 진단되지 않은 전신 염증이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. 전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클로자핀의 대사가 저해되고, 상대적으로 빠른 적정 속도 때문에 염증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클로자핀을 개시하지 않는 게 좋다. • 초기 검사 상 CRP가 비정상이라면³⁵⁾, 염증의 원인을 찾아 클로자핀 개시 전에 해결해야 한다. • 류마티스 관절염, 크론병 등 만성 염증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클로자핀을 처방할 때는 (호중구감소증과 관련이 있는) 병용 약물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. 또한 이들에게는 클로자핀을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TDM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.

CRP, C-reactive protein; TDM, therapeutic drug monitoring.